

###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2>

한 스님이 물었다.  
"이 일을 어떻게 가려내야 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나는 지혜를 괴이하다고 생각한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나는 내가 가려내지 못한 것을 괴이하게 생각한다."  
스님이 물었다.  
"그러면 보림(保任)하면 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보림(保任)하고 보임하지 않는 것은 네 스스로 살펴라."

問 此事如何辨 師云 我怪你 學云 如何辨得 師云 我怪你不辨 學云 還保任否 師云 保任不保任自看

한 스님이 물은 '이 일'이란 '도를 얻는 것' '깨달음' '화두 타파' 등을 말한다. '가려냄'은 막히고 가변이 되는 것들을 모두 털어내고 진정한 불법의 정수를 얻는 것을 뜻한다. 학승은 '어떻게 가려내야 진정한 법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참과 거짓, 부처와 중생, 도와 도 아닌 것을 가려내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하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조주 스님은 뜬금없이 "나는 내가 그렇게 묻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된다"라고 대답했다. "가려내니, 자네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다고 더 가려낸다는 말인가?"라는 반문성 힐책이다.

두 번째 질문은 학승이 못 알아듣고 거듭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다시 묻는 것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너는 이미 가려내고 있어. 다만 가려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네가 이상할 뿐이야"라는 가르침이다. 학승이 무엇인가 알아듣고, "그럼 여기서 보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조주 스님은 "그것은 네가 스스로 나는 완벽한가 부족한가 살펴서 해라"라며 말을 마쳤다.

스님이 물었다.  
"지혜(知解)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問 如何是無知解底人 師云 說什麼事

지혜(知解)는 아는 것을 말한다. 흔히 알음알이라고 한다. 진실을 알려면 아는 것을 버려야 한다. 사람이 아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약속한 개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결코

진리는 못된다. 예컨대 '높다'라는 개념은 실제 높은 것이 있어서 높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서 사람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이다. 지구는 둥글다.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 위에 서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 옆으로, 혹은 거꾸로 서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어찌 '높다'라는 말이 진실이겠는가. 이런 식으로 진리를 찾아들어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말도 진실이 아닌 사람들의 약속된 언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알음알이가 진실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선문(禪門)에서는 아는 것을 버려라고 강조한다.

학승이 조주 스님에게 지해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었다. 학승은 선문에서 말하는 무지해자(無知解者)는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조주 스님은 현재 학승이 질문한 것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백지와 같은 사람의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무지해자를 인지시켜주었다.

스님이 물었다.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와 전하려고 한 뜻이 무

### 진실을 알려면 아는 것을 버려라 진리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엇입니까?"  
조주 스님은 법상에서 내려 왔다.  
스님이 물었다.  
"그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

問 如何是西來意 師下禪床 莫便是否 師云 老僧未有語在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선문의 골수 법문을 말한다. 학승들이 흔히 묻는 질문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조주 스님은 선상(禪床)에서 내려온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선상에서 내려온 뜻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조주 스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대답은 화두가 될 수 있다.

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번 탐구해 볼만하다. 여기에는 이중 삼중의 그물이 쳐져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답을 찾아야 한다. 대략 일주일 정도 탐구한다면 선사도 어필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답이 나올 것이다. 그 답으로 선사를 찾아가서 한번 법거랑 해보기 바란다.

스님이 물었다.  
"불법은 영원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조주 스님이 되물었다.  
"자네, 한번 생각 해봐. 옛날 전한과 후한의 천자들은 천하를 손 안에 쥐고 흔들었지만 임종할 때는 동전 반쪽조차 가지고 가지 못하지 않았는가."

問 佛法久遠如何用心 師云 你見前漢後漢把攬天下 臨終時半錢也無分

불법이 영원하다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불법을 불법이라고 부르는 이상 불법은 영원할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없어진다. 천하 영웅들이 세상을 쥐고 흔들어도 죽을 때는 동전 반쪽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무엇을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조주 스님은 불법은 영원한지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특별히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스스로 부처인 것을 깨닫고 의연히 부처의 행을 하다가 가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불법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어느 종교건 그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곧 쇠퇴해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불법의 법칙이다.

스님이 물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귀한 보물을 존중합니다. 사문은 무엇을 존중합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담장 입 다물어라."  
스님이 물었다.  
"입을 다물면 되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만약 입을 다물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問 時人以珍寶爲貴 沙門以何爲貴 急舍取口 學云 舍口還得也無 師云 口若不爭能辨得

세상 사람들은 진귀한 보물을 귀하게 여기지만, 출가한 사람은 무엇보다 침묵을 귀하게 여긴다. 진리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진리에 다가가면 갈수록 말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도(道)를 아는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다. 입을 열면 도는 멀리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道)를 표현할 기회인데도 매번 침묵할 수는 없다. 설사 침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조주록>에서 매번 기이한 행동과 은유·비유를 섞어서 도를 표현했다.

■ 무불선원 선원장

###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7

### 불도를 수행하는 것

또, 하루 여섯 차례 불도를 수행한다 하는 것은 이른바, 육근 안에서 항상 불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온갖 각행(各相)으로 깨닫고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보살의 불도수행, 보리행을 닦아 육근을 편안하게 다스려서 편안하게 다스려진 것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을 여섯 차례 도를 행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탑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나 각해(各解)하지 않는 지혜의 힘(力)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두루 돌게 하는 것을 탑(塔)이라고 하느니라. 과거의 부처님들이 이 도를 행해 열반을 얻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이치를 알지 못하니 어찌 도를 행한다 하리오. 우둔한 무리들은 안으로 수행은 하지 않고 오직 밖으로만 구하느라 세간의 탑을 밤낮으로 세워 놓고 분주히 돌기만 하니 공연히 피곤하기만 하지 진실한 본성에는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으니 매우 가엾은 일이다.

#### [원문]

又六時行道者 所謂六根之中 於一切時 常行佛道 佛者覺也 即時修諸覺行 調伏六根 六情清淨 長時不捨 名爲六時行道 塔者身心也 常令覺慧 巡身心 念念不停 名爲塔 過去諸聖 曾行此道 得涅槃樂 今時世人 求解脫者 不會斯理 何名行道 竊見今時 鐘磬之輩 曾不內行 唯執外求 問塔 日夜走驟 徒自疲勞 而眞性一無利益 迷愚之輩 甚誠可憐歎

#### [해설]

사람에게는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 기관을 통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느끼고, 촉과 더운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온갖 번뇌를 일으킵니다. 하루 여섯 차례 불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육근을 통해서 경계에 도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행(各行)은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 항상 마음속에 한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육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심경계에 들어가게 됨을 뜻합니다.

각해(各解)란 깨달음은 지혜입니다. 몸과 마음을 두루 돌게 하는 것을 탑(塔)에 비유한 것은 우주를 그대로 보고 마음을 쓰는 것을 뜻합니다.

우둔한 사람은 내 마음이 부처인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끌려서 행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형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은 '이것을 하면 공덕이 된다'는 것을 믿고 행위를 하지만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행하지 못한다면 깨달음을 얻는데 아무

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또 재(齋) : 신·구·의의 3가지 행위를 삼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지닌다 하는 것에서 '재'라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다스려 어지럽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 '지닌다' 하는 것은 보호한다는 것으로 모든 계행을 법대로 지키되 반드시 욕정(慾·怒·哀·樂·愛·惡: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여섯 가지 감정)을 붙들고 매고 삼독을 눌러, 깨닫고 살피는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니라.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야 '재'를 지킨다 말할 수 있느니라.

#### [원문]

又持齋者 當須會意 不違其理 徒施虛功 齋者齊也 所謂勤治身心 不令散亂 持者護也 所謂於諸戒行 如法護持 必須禁六情 制三毒 勤修覺察 清淨身心 了如是義

#### [해설]

불교 달마에 재라는 날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항상 생활 속에서 말·생각·몸으로 행하는 행위들이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재(齋)는 몸과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해 경계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대로 지킨다'는 불교의 '오계(五戒)'를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마 스님의 '내 마음속에 대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로 본다면 모든 생명은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게 되면 나를 죽이게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내 것을 훔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로 보고 행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하나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연가나 인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여섯 가지 감정(六情)에 이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익혀온 습 때문에 습지는 양지만 업을 녹이는 수행을 해야 경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도 하나의 법으로 본다면 내 것 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탐·진·치 삼독(三毒)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재를 지키는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서 우주를 하나로 보고 있는,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동성 스님 작

## 석가세존진신 치아사리 봉안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 2010년 경인년 봄 금강산 산신대제

소통과 화합의 봄은 금강산에서...  
국내최초의 금강산 산신대제를 통해 금강산 산신님의 위신력에 흠뻑 취해봅시다.  
<사업변창, 가내길상, 건강증진, 우환극복, 부자되는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금강산 산신대제의 봉행은 범음·범패와 전통의식을 통한 여법한 행사로 진행됩니다.

- 일 시 : 2010년 4월 24일 오전 10시
- 장 소 :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 동참금 : 3만원
- 문 의 : 1) 서울, 경기지역 ⇒ 건봉사 서울포교원 벽운사  
www.bwjisan.com 02-979-0108, 971-1544  
2) 통합전지역 ⇒ 건봉사 중무소 (033-682-8100~3)

###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 제 7기 보건식품처방사

##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 수시교육 / 매일 상시 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광주교육원 062-672-5432 울산교육원 052-260-1037

####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